설

오늘은 좋은 날, 우리 설날

참 좋은 날이다.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 똑같이 넉넉하고 즐거운 날이다.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조상님을 뵙고, 고운 차림으로 부모님께 새해 첫 절 올리는, 오늘은 설날. 서로 다하지 못한 마음이 미안하고, 그 마음 서로 알아 줘서 고마워지는 날. 그 미안하고 고마운 얼굴 한 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날. 멀었던 고향길 한 걸음 되고, 아쉬웠던 마음은 보살의 마음 된다.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따로 없이, 잘나고 못난 것도 따로 없이 힘겨웠던 지난 해 서로 털어 주고, 복 많은 올 한 해 서로 빌어 주는, 오늘은 좋은 날, 우리 설날. 함께 해서 좋은 '설'을 찾아가 본다.

글 · 박재완 기자 /사진제공 · 한국불교문화사업단





B2 설 新 트렌드
명절 대세된 사찰 합동차례

B3 Stop! 명절 갈등
존중과 배려를 우선으로

B5 불교와 설차례
불교식 상차림 특징은

B6 Templestay
마음챙김 산사로

B7 전시 · 공연
예술 향연으로 '힐링'